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시편 133:1

정운돈 목사님

본문은 시편 133:1, 제목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것이 생명 살리고,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교제도 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133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 놓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성경에 영생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둘째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요, 셋째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다. 여러분, 성경은 새로 쓰면 이단이 된다. 그러나 노래는 새롭게 하라고 했다. 찬양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해야 한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재창조를 항상 해야 한다. 여러분이 똑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넷째로, 정의로운 교회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말에도 행동에도 생각에도 실수가 많다. 오늘 찬양할 때도 악보 잘못 보고 박자 잘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도 안 중요하다. 정확하게 하면 좋다. 그것도 잘 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더 누리고 더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전도와 선교가 넘치는 교회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여기에서 하는 찬양과, 선교현장에 가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그분들과 함께. 이런 오늘 우리의 준비가 선교현장까지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

의 헌신과 준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번에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고생했다. 들을 때는 분위기가 참 좋지만, 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번에는 등수도 매졌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없다. 그냥 마음 폭 놓고 누리고 기뻐하라. 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것이다. 누리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서로가 한 가족, 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까지 응답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한 이들에게 천만 배로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대회 과정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